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0월들어 미 소비 지출과 인플레이 계속 둔화
- NYT: 연준 선호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하락
- Bloomberg: 미 지속적인 실업청구 건수 2021년 하반기 이래 최대 수치
- Bloomberg: 뉴욕연방은행총재, "연준,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필요"

[미국 금융]

- Bloomberg: 1980년 이래 채권 폭락으로 모든 부문 랠리
- Bloomberg: '시장 랠리 끈날 것'이라는데 트레이더들 베팅'

[COVID-19]

- CNBC: 코비드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오일]

- Bloomberg: 고위급 OPEC+ 회담 앞두고, 유가 사흘째 상승
- WSJ: 미국 원유 재고량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다

[물류]

- WSJ: 해운업계, 팬데믹 때 과도한 선박 주문으로 운영난관

[미 자동차 파업]

- WSJ: UAW, 비노조 자동차기업 대상으로 파업 확장 계획하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국 기회 지수', 커리어를 위한 최고의 기업으로 코카콜라 선별
- Bloomberg: 테슬라, 오늘 사이버트릭 고객에게 첫 인도
- CNBC: 인권운동재단, 500개 이상 기업에 성소수자 관련 만점점수 부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Consumers Pulled Back on Spending in October

10월들어 미 소비 지출과 인플레이 계속 둔화

- 오늘 목요일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미 소비 지출은 9월에 0.7% 상승에서 10월에는 0.2%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지난 5월 이래 상승세가 가장 작다.
- 이는 소득 성장 둔화와 높은 이자율과 물가, 그리고 팬데믹 저출 축소,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NYT: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Eased in October 연준 선호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하락

-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목표로 할 때 인용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10월에 전년 동월 비교 3% 상승했다. 이는 9월의 연율 상승율 3.4%보다 수그러들었다.
- 변동성이 큰 식품가와 연료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압력은 연율로 3.5% 상승해 3.7%에서 하락했다.
- 연준이 금리 변동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물가 하락으로 연준은 12월 12일부터 양일간의 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Bloomberg: US Continued Jobless Claims Jump to Highest Since Late 2021

미 지속적인 실업청구 건수 2021년 하반기 이래 최대 수치

- 미국인 실업자가 계속받는 실업 청구 수당 신청이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확인시키고 있다.
- 이 청구 수치는 지난 11월 18일 끝난 주에 1백93만건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 한편 11월 25일 끝나는 주간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7천건이 증가한 21만8천건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현상들은 실업률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올라가는 상황이고 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전반적인 업종에서 구인 열기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Expects Policy to Stay Restrictive for Some Time

뉴욕연방은행총재, "연준,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필요"

- John Williams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의 기준 금리와 최고 수준 또는 그 수준에 근접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연준 통화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 그는 25년만에 가장 제약적인 수준이라며 경제가 완전히 균형을 잡고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기 위해서는 제약적인 기조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Biggest Blowout in Bonds Since the 1980s Sparks Everything Rally****1980년 이래 채권 폭락으로 모든 부문 랠리**

- 요지: 채권 수익률의 급락으로 주식, 신용, 어머징 마켓이 상승세 촉진.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추가 수익 여력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채권 시장에서 11월은 기록적인 달로 기록됐다.
-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채, 기관 투자, 모기지 채권 가격을 끌어올리면 1980년 대 이후 최고의 한달을 보냈다. 동시에 주식, 신용, 신흥시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랠리가 발생했다. 가상 화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주택 대출부터 기업 부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채권의 기준인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0.65% 하락한 4.29%를 기록하면서 블룸버그의 미국 종합지수는 이번달부터 수요일까지 수익률이 4.9% 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etail Traders Cash Out on Bet That Market Rally Is Nearing End**‘시장 랠리 끈날 것이라는데 트레이더들 베키’**

- 요지: 올해 증시 강세를 보인후에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기를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거대한 기술 기업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들 기업들은 Alphabet, Amazon.c., Apple, Meta Platforms, Microsoft, Nvidia, Tesla를 말한다.
- 올해 주요 지수를 끌어올린 소수의 기술 기업들이 계속 선전할지 고민하면서 트레이더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더 위험한 투자 종목을 매도하고 있다.
- 경제 전반외 상황과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이 잘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다가오는 역풍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OVID-19]**CNBC: Covid vaccine rates in the U.S. are slumping — and it will be a challenge to boost them****코비드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 코비즈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다. 백신 제조업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과 그 이후에 백신 접종률은 올해 최근의 백신 접종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불확실한 상황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지 여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접종률을 높일수 있을지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접종률이 낮으면 백신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 기사

[오일]**Bloomberg: Oil Advances for Third Day Ahead of High-Stakes OPEC+ Meeting****고위급 OPEC+ 회담 앞두고, 유가 사흘째 상승**

- 트레이더들이 내년에 대한 OPEC+의 원유 생산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유가가 사흘째 오르고 있다. 서부텍사스유는 거래가가 79달러에 근접했다.
- 관계자에 따르면, OPEC+는 하루당 최소 백만 배럴 원유 감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산유국들에 감산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
- 추가적인 감산은 내년도 초에 기대되고 있는 원유 약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초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의 풍부한 원유 생산으로 인해 원유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WSJ: U.S. Crude Oil Inventories Increased More Than Expected**미국 원유 재고량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다**

- 수요일에 공개된 미 에너지관리청(EI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휘발유 그리고 증류 원료(distillate fuel) 재고가 지난주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유기업들이 원유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 지난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량이 9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 전략비축유(SPR)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비축량이 11월 24일을 마지막으로 1백60만 배럴이 증가해 4억4천9백70만 배럴을 기록했다. EIA에 따르면, 이는 5년 평균 재고치보다 살짝 많은 수치이다.
- 전략비축유는 30만 배럴 증가해 3억5천 1백60만 배럴, 원유는 1백80만 배럴 증가해 2천7백70만 배럴, 휘발유는 1백80만 배럴 증가해 2억1천 8백20만 배럴, 그리고 증류 원료는 5백20만 배럴 증가해 1억1천 80만 배럴을 각각 기록했다.

WSJ 기사

[물류]

WSJ: The Pandemic Blunder Weighing on the Shipping Industry 해운업계, 팬데믹 때 과도한 선박 주문으로 운영난관

- 컨테이너 선박 업체들은 코로나 동안 소비재 수요의 증가로 글로벌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 많은 선박들을 주문했었다.
- 그러나, 시기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 선박 제조업체들의 전체 주문 중에 26%가 컨테이너 선박이며, 이들이 건조돼 전달되는 시점이 앞으로 2년이나 더 남은 것이다.
- 수요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업 경영진들은 적어진 운임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선박이 출항하면서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 글로벌 무역의 거물로 여겨지며, 700대 이상의 선박을 운영하는 Maersk는 이번 달 초에 이미 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미 자동차 파업]

WSJ: UAW Launches Organizing Drive, Targets Tesla and Toyota UAW, 비노조 자동차기업 대상으로 파업 확장 계획하다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어제 수요일, 토요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을 파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기업에만 15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 UAW가 파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자동차 기업들의 규모 축소와 아웃소싱으로 인해 노조의 영향력이 감소한 이후에 자신들의 입지를 상당히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비노조 자동차 기업들인 혼다, 스바루 그리고 토요타는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디트로이트 3사의 노사 협상 이후에 임금을 이미 올린 바 있다.

-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어제 수요일, 노조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oca-Cola Is the Best Place to Work to Get Ahead in Your Career

‘미국 기회 지수’, 커리어를 위한 최고의 기업으로 코카콜라 선별

- 구직자들에게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가 뭘까? 4백70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400여 곳 중에 코카콜라가 최고의 커리어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 여기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솔츠 재단, 비영리 단체인 버닝 글라스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인 미국 기회 지수(The American Opportunity Index)가 사용됐다.
- 이 지수는 고용, 임금 그리고 승진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수백만 명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측정한다.
- 이 지수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진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커리어 발전을 고려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 한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지수를 통해 일반적인 고용 방법에서 벗어나 더 적절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직하는 직원들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
- 이 지수를 만든 단체들은 이 지수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용자 품질 척도라고 주장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sla Cybertrucks Set to Be Delivered to First Customers

테슬라, 오늘 사이버트럭 고객에게 첫 인도

- 2년간의 연기와 생산 문제 끝에, 테슬라가 마침내 사이버트럭을 고객에게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 테슬라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출시 행사의 일환으로, 첫 차량들을 테슬라 본사에서 인도할 예정이다.
- 또한 이 기업은 가격과 차량 구성 그리고 배터리 성능 같은 핵심적인 정보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미국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픽업트럭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량으로서, 이에 대해 많은 기대와 비판이 있었다.

Bloomberg 기사

CNBC: More than 500 companies had perfect scores on top advocacy group's LGBTQ+ index**인권운동재단, 500개 이상 기업에 성소수자 관련 만점점수 부여**

- 인권운동재단(HRC)이 성소수자 평등 정책 설문조사에 동의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례 기업 평등 지수(CEI)를 통해 545개의 기업에 만점을 부여했다.
-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타겟과 Anheuser-Busch, 두 기업 또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2년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침체 우려 반영하기 시작"****2년물 금리 24일 4.95%에서 29일 4.64%로 내려와**

최근 미 국채 시장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기자 칼럼을 통해 지난달 미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골디락스'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최근 낙관론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24일 4.951% 수준에서 이날 4.648%로 빠르게 내려왔고 시장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돈을 거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